

5,6월의 해충(XIII) (박쥐나방)

변 병 호 / 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이 해충은 나무의 줄기 및 가지를 가해하므로 어린나무가 피해를 받으면 수세가 쇠약되어 생장이 아주 불량하거나 피해 부위가 부러져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무서운 해충이다.

◆ 분포 : 한국, 일본

◆ 가해수종 : 밤나무, 호도나무, 가래나무, 포도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버즘나무, 물푸레나무, 등나무, 무궁화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졸참나무, 유카리나무, 시달나무, 은행나무, 삼나무, 편백, 각종초본류.

◆ 가해상태 : 어린유충은 지표의 낙엽층에 서식하며 초본류의 지면 부위 줄기표면을 먹으며 성장하여 어느정도 크면 초본의 줄기속 또는 나무로 이동한다.

나무에 정착한 유충은 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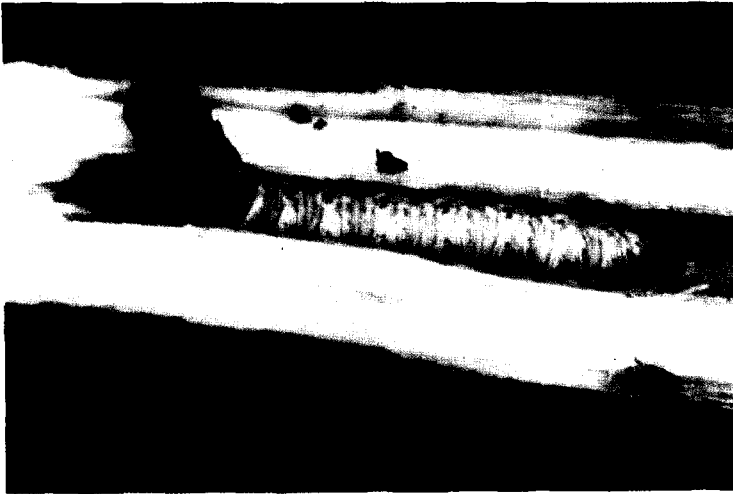


피해 줄기

의 인피부(韌皮部)를 고리모양으로 파먹은후 줄기의 중심부로 목질부를 파고들어가 아래위로 갱도(坑道)를 만들며 먹는다. 가해부위는 벌레똥과 나무가루(木屑)를 밖으로 내어

실로 묶어놓아 흑갈이 보이므로 이 해충의 피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린나무는 바람에 가해부위가 부러져 나무가 고사하는 때가 많다.

◆ 형태 : 성충의 날개를 편



피해지 내의 노숙유충

길이는 80~90mm, 체장은 34~45mm이고 촉각은 짧고 입은 퇴화되어있다. 몸과 날개는 갈색이고 앞날개에는 회록색의 운상문(雲狀紋)과 작은 흑색의 점이있다. 뒷날개는 암갈색이고 뒷면은 회갈색이다. 알의 장경은 1mm미만이고 구형이며 흑색이다. 노숙유충의 체장은 80mm이고 머리와 앞가슴은 갈색이고 몸은 유백색이며 마디마다 갈색의 작은 반문(斑紋)이 산재해 있다. 유충은 자랄수록 앞가슴 피부판(皮膚板)이 흑갈색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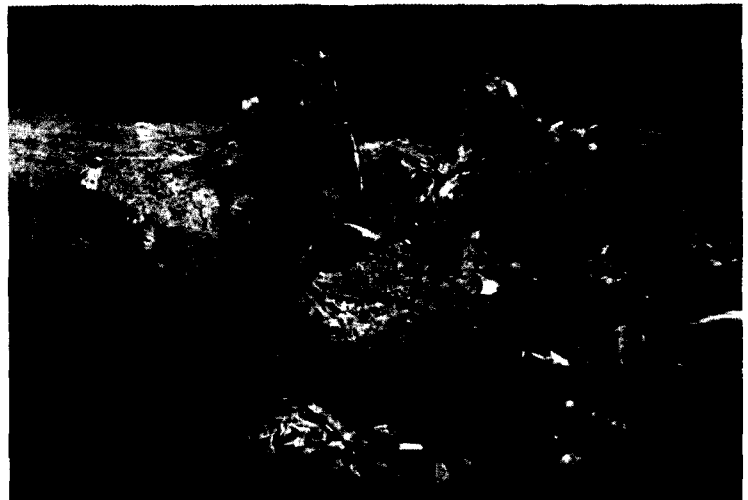
◆ 생활사 : 성충이 출현하는것은 가해수종 또는 지역에 따라 1년에 1회 2년에 1회 발생한다. 성충은 8월하순~10월상순에 우화하여 밤에 날라다니며 알을 땅에 산란한다. 암컷한마리의 산란수는 3,000~8,000개이며 때로는 1만개

이상일때도있다. 지면에서 월동한 알은 5월에 부화하여 연한 초본류의 지표부분의 수피를 먹다가 어느정도 성장하면 초본의 줄기속이나 나무로 이동하여 줄기나 가지의 껍질을 고리모양으로 파먹고 목질부의 중심부로 들어가 그속에서

번데기가된다. 번데기 기간은 2~4주간이고 복부에있는 돌기로 갱내를 자유로이 이동하며 우화기가 가까와지면 출입구에 번데기의 반정도를 밖으로 내놓고 우화한다.

◆ 방제법 : 피해부위가 줄기의 밑부분에 많고 발견이 쉬우므로 피해공을 찾아서 메프유재 300배액을 주입하거나 철사줄을 이용하여 찢러 죽인다.

어린유충기에 초본류를 가해하므로 풀깎기를 하며 먹이가 없도록한다.▲▲



피해지 내의 번데기